

나주시, '찾아가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성황리 운영

시청, 혁신도시 공공기관 6곳 순회...



찾아가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된 블루베리 상품 사진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지역 농업인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 '찾아가는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주관으로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나주시청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6개 기관에서 '찾아가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는 나주시청을 비롯해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우정

정보관리원, 한전KDN, 한전KPS 등 6개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했고 향후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도 직거래장터를 운영 예정이다.

행사에는 나주블루베리연합회와 농산물 가공업체 등 10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블루베리를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며 약 2천 8백여 만 원의 판매 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담양군, 담양사랑상품권 할인 혜택 개편

화순군,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

담양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카드·모바일형 담양사랑상품권의 할인 방식을 기존 '12% 후 캐시백'에서 '10% 선 할인+2% 후 캐시백'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매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카드·모바일형 담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한 뒤 결제 금액의 12%를 환급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구매 시 10%를 즉시 할인받고 사용 후 2%를 환급받게 된다.

변경 대상은 카드형과 모바일형 담양사랑상품권이며,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계속 운영된다. /최정민 기자

화순군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 안전을 위해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무더위쉼터 점검과 냉방시설 운영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부 확인과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살수차 운영과 그늘막 설치 등 현장 중심의 폭염 저감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주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장세일 영광군수, 염전 현장 방문하여 실태 점검

염전 근로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점검



염산 봉남리 염전 현장방문 사진

/영광군청 제공

장세일 영광군수는 최근 발생한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염전 현장을 방문(6월 23일)하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영광 천일염 생산자 협의회 회장(회장 강명수) 및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염전 현

장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세일 군수는 현재 추진 중인 염전 근로자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향후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추진을

주문하였다. 영광군은 염전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염전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차 심층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염전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의 정례화(연 2회) ▲명예 인권지킴이 지정·운영 ▲천일염산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사전 예방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천일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근로자의 인권보호가 최우선"이라며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과 점검을 강화해 인권침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염전 근로자 고용실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정기 조사와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예방 중심의 관리체제를 강화해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률 기자

장성군, 가정의 달 기념 '가족 걷기대회' 열어

가족센터 주관... 황미르랜드 일원 함께 걸으며 체험 프로그램 참여

장성군가족센터(센터장 이정문)가 지난 20일 장성군가족행복센터와 황미르랜드 일원에서 가정의 달 기념 '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걷고(go)! 웃고(go)! 함께하고(go)!'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100여 명의 가족 참가자들은 출발 신호에 맞춰 가족행복센터~황미르랜드 방면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함께 걸었다.

코스 중간에는 비눗방울 체험, 돌림판 퀴즈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아이스크림과 간식 꾸러미, 장난감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모든 코스를 다 걸은 가족에게는 '포토월' 기념 촬영 기회를 제공했으며, 완주 메달도 증정했다.

행사장 한편에선 '가치나눔존'을 마련해 의류, 생활용품 등 후원 물품을 나누기도 했다. 가족센터 홍보부스에서는 '에스엔에스(SNS) 팔로우 이벤트', 기념품(굿즈) 뽑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현장을 찾은 김한중 장성군수는 "건강한 가족문화가 확산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가족이 함께 걸으며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통해 가



가족 걷기대회 현장

/장성군 제공

건강한 가족문화가 확산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가족이 함께 걸으며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통해 가

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군민이 함께하는 가족 중심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나눔과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유광중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